

상식(常食)의 상식(常識)을 되묻는 소설들*: 한국 채식 소설 연구

백 중 룬**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4. 기술만능주의적 해법과 세계관의 변화 |
| 2. ‘자연’의 파괴와 육망의 재배치 | 5. 나오며 |
| 3. 피식자와 동료 생명체 | |

국문초록

이 글은 동물 이용 및 소비를 정당화하는 주류 사회의 문화로부터 스스로를 떼어 내어 상식(常食)의 상식(常識)을 되묻는 소설들,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 사이의 윤리적 관계에 대한 숙고를 바탕으로 어떤 존재가 죽여도 괜찮고 먹어도 되는 것으로 치부되는지를 둘러싼 이 사회의 공통감각(common sense)을 갱신하려 시도하는 소설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육식 행위에서 동물이 부재지시대상으로 전환되는 기제와 채식을 비자연적인 금욕주의로 환원하는 재현 관습을 분석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퀴어 에로스를 통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7087149).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한 육망의 전환과 연결의 증식을 논의한다. 또한 인간을 포식자가 아닌 피식자로 위치시키는 식인 모티프를 다룬 소설들을 검토하고, 인간과 동물이 맺고 있는 삶-관계의 형식과 비인간 동물의 인격/개성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인간뿐 아니라 동료 생명체인 동물 역시 먹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제시하는 소설들을 살펴본다. 나아가 배양육 기술을 통해 미래에는 동물의 죽음을 수반하지 않는 육식이 가능해지리라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의 발전에 모든 것을 맡기는 ‘도박’을 감행하기보다 미래의 인간-동물 관계를 둘러싼 세계관 자체를 변혁하는 상상력이 더 중요함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채식을 중심 소재로 다루는 청소년소설을 통해 비건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서사적 공감과 연결의 공동체를 가능케 하는 문학의 역능을 고찰한다. 한국 문학이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관한 복잡다단한 윤리-정치적 문제들과 고민들을 어떻게 이어 오고 있는가를 다룸으로써, 이 글은 ‘우리=비/인간’의 삶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실천으로서 채식주의/비거니즘 담론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채식주의, 비거니즘, 동물, 인간-동물 관계, 퀴어 에로스, 식인, 배양육, 기후위기, 기후소설, 부재지시대상

1. 들어가며

여기, 한 명의 채식주의자가 있다. 몸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로서 그 ‘몸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존재의 생명을 기어이 꺼뜨릴 수밖에 없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남자. 평생 인간을 위한 재/생산 노동에 시달리다 사후에는 한낱 ‘고깃덩어리’가 되어 인간에게 먹히고 마는 운

명을 타고난 소의 얼굴을 떠올리며, 소의 사체를 먹었던 것을 자신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라 생각하는 남자. 그 죄악에서 벗어날 방법은 오직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실천하는 길뿐이라고 말하는 남자. 1925년 벽두에 발표된 이일의 소설 「채식주의자」(『조선문단』, 1925.1)에 나오는 T의 이야기다. 이 소설을 두고 김기진은 감옥에 갇힌 한 죄수가 이런저런 공상을 이어 가며 쏟아 내는 “지리멸렬한 문장 이외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혹평했다.¹⁾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후세대의 인식론적 이점에 기대어, 채식을 주요하게 다루는 한국 소설들에 나타나는 하나의 전형적인 구도를 포착한다. 동물 이용 및 소비를 정당화하는 주류 사회의 ‘폭력적’인 문화로부터 스스로를 떼어 내어, 이일이 썼듯 “상습화하여 (...) 별로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인간의 식습관(52), 즉 상식(常食)의 상식(常識)을 되묻는 이야기들.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 사이의 윤리적 관계에 대한 숙고를 바탕으로 어떤 존재가 죽여도 괜찮고 먹어도 되는 것으로 치부되는지를 둘러싼 공통감각(common sense)을 갱신하려 시도하는 이야기들. 이일의 소설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가진 하나의 전형성을 보여 준다.

이일의 「채식주의자」로부터 50여 년이 흐른 1972년 『지성』에 발표된 이제하의 「초식」(『문학동네』, 1997)은 이러한 전형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이 전형성이 마치 스펙트럼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초식」은 매번 낙선하면서도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육식을 중단하고 채식을 시작하는, ‘나’의 아버지 서광삼의 특이한 선거 준비 행태를 그린다. 그가 선거철마다 채식을 하는 까닭이 『성경』의 「다니엘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는 서술이 암시하듯, 그의 채식은 기존의 권력과 질서를 거부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소산으로 읽힌다. “나를 사자 아가리에 처넣어 보시오! 펄펄 끓는 불 속에 나를 콕 던져 보시오! 내한테 어디 평생 풀만 먹여 보시오! 끄떡도 안 할 것이오”

1) 김기진, 「일월창작계총평」, 『개벽』 56호, 1925.2, 13쪽.

(151)라는 그의 연설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동화주의에 저항하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마찬가지로 “사자 아가리”와 “펄펄 끓는 불” 역시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자굴, 풀무불을 참조한 발언으로, 모두 절대 권력자인 왕의 명령에 불복하고 순교를 택했던 다니엘의 믿음과 의지를 표상한다.²⁾ 「초식」에서 서광삼의 채식은 육식이라는 습속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³⁾에 살고 있는, “정육점의 고기를 거덜 내는 그 모든 시민들”(159)의 무리에서 스스로를 빼내기 위한 하나의 의례로 그려지는데, 이때의 ‘육식성’은 이승만에서 박정희로 이어지는 부패한 정치권력에 다름 아니다. 결국 「초식」은 육식이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폭력이자 그러한 폭력의 관습화·제도화된 형태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알레고리 형식을 통해 “관습—금기에의 저항”⁴⁾을 보여주는 “정치소설”⁵⁾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육식을 특정한 권력, 제도, 관습과 그에 따른 폭력으로 이해하고 채식을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 전제하는 인식틀이야말로 한국 채식 소설의 전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이러한 전형성이 구현되는 방식들 간에는 분명한 차이 역시 존재한다. 육식문화 하에서 비인간 동물이 처해 있는 삶의 현실과 그것이 인간에게 야기하는 죄책감/책임감에 얼마나 명시적인 관심을 기울이는지에 따라 각각의 작품은 이 전형성의 스펙트럼 안에서 상이한 위치를 점한다. 예컨대 「초식」은

2) 채식, 풀무불, 사자굴은 순서대로 「다니엘서」 1장, 3장, 6장에 등장한다. 상징들의 구체적 해석은 장운철, 「구약성경의 다니엘이 채식주의자라고?」, 『교회와 신앙』, 2022.12.26, <https://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40> (접속일: 2026.07.20) 참조.

3) 이호규, 「집단적 광기에 녹아내린 반향」, 『우리어문연구』 17집, 우리어문학회, 2001, 216, 219쪽.

4) 김현, 「일탈과 콤플렉스에서의 해방」, 『김현문학전집』 2권, 문학과지성사, 1991, 379쪽.

5) 정호웅, 「세계의 폭력에 맞서는 방식」, 이제하, 『초식』 문학동네, 1997, 311쪽.

권력을 쥔 인간이 자행하는 폭력 일체를 지시하기 위한 알레고리로 육식을 활용하는 경향이 짙다. 물론 「채식주의자」 또한 작품 후반부에 이르러 인간이 영양 섭취를 위해 동물을 죽여 육식을 하는 행위가 결국 인간과 인간의 싸움으로 귀결되며, 그 결과 “자기 손가락에다 같은 사람의 피가 묻어야 살아간다 하면 사람의 생활처럼 죄악 많은 것은 없다”는 서술로 나아간다(52-53). 이러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은 사자와 호랑이의 ‘육식성’ 대신 양과 소의 ‘채식성’을 따르겠다는 T의 말은, 이 소설이 동물에 대한 인간의 폭력을 넘어 인간/비인간 모두를 향한 폭력—예컨대 식민지화—을 거부하는 상징으로서 채식의 의미화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⁶⁾ 그러나 이일의 소설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도, 비인간 동물을 향한 관심을 잃지 않고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 사이의 유사성에 기반해 동물을 섭취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반대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초식」과는 다른 위치에 놓인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상술한 전형성이 이중의 추상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초식」이 드러내는 한국 채식 소설의 전형적 재현 가운데 하나는 (1) ‘동물’이 ‘고기’로 추상화되는 과정과 (2) 고기를 소비하는 행위, 즉 ‘육식’이 ‘제도화된 권력’으로 추상화되는 과정을 내포한다. 이는 캐럴 J. 애덤스가 말한 부재지시대상으로서의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재지시대상이란 동물의 신체를 파편화하는 도살 과정을 거쳐 동물이 ‘고기=음식’으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고기라는 언어 안에 더 이상 살아 있는 동물이라는 의미가 현존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가리키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이 같은 부재지시대상화는 동물을 먹는 행위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동적이고 본능적(visceral)인 거부감을 상쇄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육식을

6) 조운정, 「무명작가의 복원과 문인교사의 글쓰기」, 『한국현대문학연구』 48집, 한국현대문학회, 2016, 257-258쪽 참조.

하는 이들이 그러한 행위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든다. 즉 “‘동물’을 ‘고기’로 과편화·사물화하는 과정이 동물에 대한 폭력을 비가시화하는 차폐막을 제공하며, 그 결과 동물의 사체를 먹는 행위가 가지는 도덕적 혹은 윤리적 불안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⁷⁾ 나아가 애덤스는 육식이 인간이 겪는 폭력적인 상황에 관한 은유로 사용될 때, 인간의 육식 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인 동물이 겪는 구체적 피해 상황이 상대적으로 흐릿해짐으로써, 동물은 다시 한번 부재지시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⁸⁾ 「초식」에서 육식이 이중의 추상화를 경유해 기존의 권력에 대한 은유와 상징으로 사용되는 동안, 그러한 육식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되는 비인간 동물의 참혹한 운명은 은폐된 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재지시대상으로 전환된다. 이처럼 육식과 채식을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가진 비인간 동물이 얼마나 부재지시대상으로 전환되(지 않)는지에 따라 한국 채식 소설의 전형성은 스펙트럼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간 한국 문학사에서 육식에 덧씌워진 은유적 의미는 다양하게 변주되어 왔다. 예컨대 평소 기괴하게 느껴질 정도로 육식만을 탐하던 언니가 미국에서 어떤 남자의 정액을 그대로 삼켜 버린 뒤 더 이상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담은 김이태의 「식성」(『궤도를 이탈한 별』, 민음사, 1997)에서 육식은 남성적 폭력성에 대한 하나의 은유로 해석될 수 있다.⁹⁾ 또한 천정완의 「육식주의자」(『창작과비평』, 2013.7)는 육식주의자인 팀장과 함께 “도축클럽”에 방문해 몽둥이로 직접 때려잡은 소의 “진짜 고기맛”을 본 뒤 내면에 잠재돼 있던 폭력성을 각성함으로써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경쟁사회에 적합한 남성/인간(Man)으로 거듭나는 화자의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그린다(165). 이 소설들에서 육식

7) 백종륜, 「데리다의 채식주의 비판과 에코페미니즘의 맥락적 채식주의 윤리」, 『비평과 이론』 29권 2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24, 70쪽.

8) 캐럴 J. 애덤스, 류현 역, 『육식의 성정치』, 이매진, 2018, 104-105쪽.

9) 김재경, 「소설에 나타난 음식과 권력의 문화기호학」, 『여성문학연구』 2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266쪽.

은 가부장제-자본주의 체제¹⁰⁾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상징으로서 기능한다. 특히 이 전형적인 구도 하에서 육식은 육망의 자유로운/무절제한 표출로 이해되며, 그 대척점에 놓인 채식은 타자를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육망을 충족하는 것에 대한 거부, 즉 금욕으로 표상된다. 오수연의 『부엌』(이룸, 2001)은 이 육망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비전인 다모의 금욕주의와 육식주의자인 무라뜨의 자유주의를 극명하게 대비시킨다. 작품에서 다모는 감응력(sentience) 있는 존재를 포식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인물로,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는 (...) 금욕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24). 반면 “음식에 대한 아무런 금기가 없”으며, “먹고 싶다는 단순한 욕구만으로 다른 생명을 죽이고 해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무라뜨는 죄책감 없이 육식을 향한 욕망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인물로 묘사된다(61). 이처럼 ‘채식주의=금욕주의’라는 등식의 기저에는 잡식동물인 인간이 다른 동물의 살점을 먹고 자 하는 욕망이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간보다 동물을 우선시하는 채식주의자란 도덕적 우월성에 도취된 위선자에 불과하다는 『부엌』 속 무라뜨의 말(27)을 안성호의 「육식」(『실천문학』, 2004.8)과 겹쳐 읽어 볼 필요가 있다. 「육식」에서 생태빌라의 입주민들은 생태주의자인 김교수의 가르침을 받아 엄격한 채식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김교수에 따르면, “우유는 인간과 같은 동물의 몸에서 짜낸 것”으로서 우유를 마시는 것은 “착취자, 우유 도둑, 식인[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109). 또한 죽은 동물의 살을 먹는 “육식은 야만”(113)이며, 인간의 포식은 곧 수많은 죽음의 양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설이 진행되면서 입주민들이 실은 소의 살과 젖을 향한 ‘육망’과 ‘육구’를 고통스레 억눌러 왔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진다. 작품은, 입주민들이 어느 날부터 누군가 전(前) 축산업자 박씨의 문 앞에 놓아두는 우유와 고기를 가져다 먹는 자신들의 행위

10) 마리아 미즈, 최재인 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2014.

를 정당화하고자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뱃속으로 들어가 강한 자의 영혼이 되는 것이 신이 만든 섭리”라는 약육강식의 논리를 주워섬길 정도로 ‘위선적’인 인간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113). 이러한 서술에서 알 수 있듯, 채식을 금육으로 표상하는 것의 이면에는 도덕의 이름으로 금지돼야 할 육망, 즉 육식을 향한 육망이 이미 인간에게 선재하며, 그러한 육망을 애써 감추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위선적인 태도라는 인식이 숨어 있다. 채식주의/비거니즘을 위선으로 치부하는 이 같은 인식의 기저에 놓인, “육식은 ‘비도덕적’이거나 ‘나쁜’ 것이 아니지만, 채식은 ‘위선’이고 ‘착한 척’”이라는 “찌그러진 이분법”은 인간-동물 관계에서 ‘좋은’과 ‘나쁜’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킨다.¹¹⁾

‘위선’이나 ‘정치적 올바름’이 발화되고 수행되는 구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것이 지시하는 가치 자체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행위는 “나에게 편안한 것, 내가 느껴 온 것, 내가 살아온 방식”에 대한 의문과 성찰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¹²⁾ 이처럼 익숙하고 상투화된 ‘나’의 삶의 방식을 결코 되돌아보지 않는 무사유¹³⁾를, 그리고 육식문화 안에서 비/인간 동물이 처한 수다한 곤경들에 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되도록 혹은 생각하지 않아야 하도록 만드는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무지생산(agnogenesis)¹⁴⁾을 중단시키기 위해, 이 글은 인간-동물 관계에 관한 한국 소설의 상상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미 많은 논자들이 지적해 왔듯, 코로나19를 비롯한 인수공통감염병은 인간의 육식문화와 이를 떠받치는 단일가축 밀집사육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11) 백종륜, 「채식의 정동 정치」, 『문화연구』 8권 1호, 한국문화연구학회, 2020, 104쪽.

12) 정지우,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한겨레출판, 2020, 280쪽.

13) 한나 아렌트, 김선옥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2006.

14) Robert N. Proctor, “Agnotology,” *Agnotology*, eds. Robert N. Proctor and Londa Schiebing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8, p. 11; 김정희원, 『공정 이후의 세계』, 창비, 2022, 88-89쪽.

그 양상을 달리하며 비/인간 사회에 반복적으로 출현할 것으로 강하게 예측된다.¹⁵⁾ 이처럼 인수공통감염병이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인간이 동물과 맺어 온 ‘잘못된’ 관계의 민낯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사건”¹⁶⁾이라고 할 때, 한국 문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래할 이 “오래된 비상사태”¹⁷⁾에 어떻게 응답해 왔는가. 육식이 식단의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현 상황에 맞서 한국 문학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관습을 문제화했으며, 어떻게 지금과는 판연히 다른 인간-동물 관계를 상상하거나 혹은 상상하는 데 실패했는가. 육식문화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려는 탈주(fuite)의 움직임인 채식주의/비거니즘에 관해 한국 문학은 어떠한 문법(들)을 구축해 왔는가. 이것들이 바로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질문들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먼저 제2장은 한국 채식 소설에서 비인간 동물의 부재지시대상화라는 문제와 채식주의를 금육주의로 등치시키는 문제를 조금 더 깊이 고찰한다. 제3장은 인간과 동물이 똑같은 몸된 생명이라는 사실을 망각에서 건져냄으로써 섭식가능성(edibility)의 경계를 둘러싼 상식(常食)의 상식(常識)을 부수고 다시 짓는 한국 소설의 윤리-정치적 지향을 다룬다. 제4장에서는 인간-동물 관계의 미래를 상상하는 소설들에서 “동물의 죽음 없이는 아무도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고기의 의미가 지나는 본질”¹⁸⁾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포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순진한 기술만능주의를 넘어 세계관 자체의 일대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논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는 제5장에서는 청

15) 립 윌러스, 구정은·이지선 역,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 너머북스, 2020.

16) 백종륜, 「비건은 인간중심주의와 종차별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OFF Magazine』, 2021, <https://off-magazine.net/TEXT/2021-jongryun.html> (접속일: 2026.07.15).

17) 안드레아스 말름, 우석영·장석준 역,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마농지, 2021.

18) 애덤스, 앞의 책, 108쪽.

소년소설을 살피면서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를 위해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간략히 짚어 본다. 이 글은 그동안 한국 소설이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관한 복잡다단한 윤리-정치적 문제들과 고민들을 어떻게 이어 왔는가를 다룸으로써, 인간과 비인간의 삶 모두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실천으로서 채식 담론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자연’의 파괴와 육망의 재배치

조진주의 「더 나은 것」(『릿터』, 2019.4)에는 임신한 비건 여성이 등장한다. 소의 사체가 불에 익으면서 나는 냄새에 저도 모르게 식욕을 느끼던 여성은 이내 “저 고기가 원래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야 해. 저것이 상 위에 올라오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를”이라고 되뇌며 고기를 향한 자신의 ‘육망’을 억누른다. 이 모습을 보던 남편은 태아와 동물 중 누가 더 중요하냐는 익숙한 물음을 던지면서 여성의 채식 실천을 “이기적인” 행위로 매도한다. 이 말에 여성은 분노를 느끼면서도 “갑자기 이렇게 고기가 먹고 싶어진 까닭이 혹시 아이의 몸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은 아닐지 고민한다(16-17). 결국 여성은 자신의 앞에 놓인 작은 고깃조각이 아무래도 소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고기를 먹게 되고, 소설은 마치 태아가 정말로 육식을 원했던 것이라는 양 여성이 강렬한 태동을 느끼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여기에서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인간과 동물의 고통/안녕이 제로섬 관계로 규정되는 가운데 동물의 부재지시대상화가 동물의 사체를 먹는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 주는 합리화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 그리고 육식을 향한 육망은 선천적인 것이라는 식의 ‘육식=자연’ 대 ‘채식=금육’의 논리가 이 소설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육식=자연’ 대 ‘채식=금육’의 논리는 비건을 향한 가장 정형화된 형태의 비난을 구성하는 토대에 해당한다. 송경아의 「위태로운 식탁」(『문학동네』, 2021.12)은 “평범한 오십대 주부”(290)인 현아가 어느 날 “생명을 존중하고 에너지 낭비를 막고 지구온난화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앞으로 비건으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딸 세미의 선언을 마주한 이야기를 그린다(294). 소설은 비거니즘이란 ‘여성우월주의자’인 페미니스트들 중에서도 “도덕주의자인 척하는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거고 주변 사람들까지 못살게 구는 거라서 더 질이 나쁘다고” 비난하는 남동생 세훈과 세미의 연쟁 장면을 특히 인상적으로 묘사한다(297). 이때 현아는 페미니즘을 여성우월주의와 등치시키거나 세미를 ‘꼴페미’라 부르는 세훈의 말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살아온 관성과 고집”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마음속으로 떠올리게 된다(302). “사람이란 모름지기 잡식동물인데,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채소만 먹고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아무리 동물이 불쌍해도 그렇지, 그러면 채소는 안 불쌍한가?”(300)

위와 같은 현아의 생각은 잡식인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채식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을 때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반응에 해당한다. 잡식동물인 인간은 육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말로 요약되는 이러한 반응과 그 다양한 변주들은 잡식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은 채식주의들을 고민에 빠지게 한다. 낮에는 동물구조센터에서 일하고, 밤에는 신종 감염증 관련 연구에 쓰일 진드기 확보를 위한 ‘유해 조수’ 사냥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안리의 「플렉시테리언」(『동아일보』, 2022.01.03) 속 지오의 모습이 대표적이다. 소설에서 지오는 “열 명이 넘는 사람들 모임에서 고기를 빼자는 말은 나머지 사람 모두의 배려를 요구하는 말”이기에 고깃집이 회식 장소로 정해졌을 때 이를 반대하지 못한다. 애인인 시유의 영향으로 간헐적 채식을 실천하는 지오는 회식 자리에서 “채식주의자를 육보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반감을 사지 않으려

고” 플렉시테리언이라는 “멋진 말”로 스스로를 소개한다. 그러자 동료들은 지오에게 그동안 자신들이 채식(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온갖 종류의 고정관념들을 쏟아 낸다. 채식주의를 식물에 대한 차별이나 도덕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치부한다든가, 성분표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건강을 주제로 채식인을 혼계하려 든다든가 하는, 채식인을 향한 익숙한 조롱·비난·공격 앞에서 지오는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이 말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처럼 식사 자리의 분위기를 망치는 ‘불편한’ 존재로 인식되고 싶어하지 않는 채식주의자의 모습은 임솔아의 「광반사 재채기 증후군」(『릿터』, 2019.4) 속 주은에게서도 발견된다. 비건인 주은은 “사람들이 자신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 불편해” 하면서도 “티를 내지 않으면 자신의 신념을 지킬 방법이 없”기에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는 상황을 번번이 직면”하는 인물이다. 주은의 선배는 그런 주은의 첫 개인전을 축하하기 위해 “한우 양지” 육수에 두부와 버섯을 넣은 전골을 끓여 대접하면서, 비거니즘에 대한 “무지”에 기반해 “먹고 싶은 것을 어떻게 참고 사느냐고” 묻는다. 이에 주은은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비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식이 싫어졌기 때문에 비건을 하는 것이라고 혼잣말처럼 말”해 보지만, ‘채식=금육’의 논리를 부정하는 주은의 진의를 잠식인인 선배는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다. 이는 “정상이라고 착각되는 특권을 누리”는 잠식인들(만)이 채식인들에게 무언가를 질문할 수 있는 담론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¹⁹⁾ 예를 들어, 잠식인들은 채식인들에게 ‘당신은 왜 고기를 먹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지지만, 역으로 채식인들은 잠식인들에게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많은 고기를 먹고 사느냐”고 질문을 던질 수 없다(12). 고기를 먹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그러한 질문은 애초에 성립 자체

19) Eve K. Sedgwick, *Epistemology of the Closet*,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pp. 6, 11.

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제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지”에 기반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담론 권력의 차이는 채식 실천을 언제나 예외화함으로써 ‘잡식=정상=자연’ 대 ‘채식=비정상=비자연’이라는 구도를 다시 한번 강화하는 데 복무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채식주의자/비건들은 식사 자리의 흥을 망치는 역할을 기꺼이 스스로 떠맡기도 한다. 리처드 트와인은 이처럼 분위기를 깨는 비건, 즉 비건 킬조이(vegan killjoy)가 식탁 위의 기쁨(joy)을 망가뜨리는 이유란 동물 착취의 토대이자 결과로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나쁜’ 관계를 영속화하는 체제순응적인 기쁨의 각본을 지우고 다시 쓰기 위함이라고 말한다.²⁰⁾ 그러나 식탁의 분위기를 망치는 비건 킬조이가 되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다. 무언가 기쁜 일이 있을 때면 반드시 (소)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식으로 육식과 기쁨을 단단히 결부시키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약속에 균열을 일으키는 비건 킬조이는 「광반사 채채기 증후군」에서 볼 수 있듯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예민한 존재라는 낙인과 더불어 사회적 고립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채식주의자/비건을 광기나 신경증과 연결시키는 (이일의 「채식주의자」부터 이어진) 구래의 고정관념, 미란다 프리커의 말을 빌리자면 “부정적 정체성-편견적 고정관념”은 채식주의자/비건과 이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데 일조한다.²¹⁾ 그렇다면 “채식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적어도 한국에서 채식주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우선 바늘처럼 철저하게 냉정해진다는 것을 뜻”하며, “만일 절대적 채식주의를 실천하고 싶다면 가능하다면 육식주의자들인 과거의 친구들과도 절교하는 편이 좋다”는 『당나귀들』(이룸, 2005)에서의 배수아의 언설은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을지 몰라도 진실에 더 가까운 듯싶다(151).

한국 문학사를 통틀어 비건 킬조이에게 가해지는 주류 사회의 규범화

20) Richard Twine, “Vegan Killjoys at the Table,” *Societies*, No. 4, 2014.

21) 미란다 프리커, 유기훈·정선도 역, 『인식적 부정의』, 오월의봄, 2025, 80쪽.

(normalizing) 폭력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작품으로, 육식을 거부한다며 딸의 뺨을 때리고 딸의 입에 강제로 고깃조각을 옥여넣는 가부장의 모습을 그린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꼽는 데 주저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지극히 “평범한 아내의 역할”(10)을 수행하던 영혜는 어떤 꿈을 꾸게 되면서부터 육식을 중단한다. 꿈속에서 길을 잃은 영혜는 홀로 어느 헛간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수백 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깃덩어리들이 기다란 대막대들에 매달려 있는” 참혹한 광경을 목도한다(18). 출구를 찾기 위해 고깃덩어리들을 헤치고 나아가는 동안 영혜의 흰옷은 온통 피로 물든다. 겨우 헛간에서 빠져나왔을 때 영혜가 목격한 것은 소풍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 빚어내는 “말할 수 없이 찬란”한 광경이다(19). 그러나 영혜는 즐거운 모습으로 고기를 굽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헛간에서 고깃덩어리를 주워 먹고 날고기를 문질러 입에 피를 바른 자신의 모습은 행복한 소풍객들과 결코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꿈 장면은 그간 자신이 행했던 육식 행위의 폭력성을 직각하고, 스스로를 육식 사회의 규범적 행복 각본을 따를 수 없는 정동적 이방인(affective alien)²²⁾으로 감각하게 되는 영혜의 모습을 명징하게 보여 준다.

정동적 이방인으로서 영혜의 채식 실천은 남편에게 이성(理性)으로는 도무지 해독할 수 없는 기이한 암호문처럼 여겨진다. 작품에서 이러한 영혜와 남편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영혜가 더 이상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영혜의 가족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계기는, 남편 회사의 부부 동반 회식 자리에서 영혜가 식탁의 분위기를 망친 사건으로 그려진다. 아내가 채식을 한다는 사실을 밝히자 회식 자리에 있던 이들은 너도나도 한마디씩 말을 엮는다. 그중에는 “육식은 본능이에요. 채식이란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라거나 “골고루, 못 먹는 것 없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것 아니겠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22) 사라 아메드, 성정혜·이경란 역, 『행복의 약속』, 후마니타스, 2021.

으로나 원만하다는 증거죠”라는 반응도 섞여 있다(31). 채식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부자연스러운 행위이자 신체적·정신적으로 원만하지 않은 상태를 드러내는 징후라는 이들의 말은 앞서 언급했던 ‘육식=자연’ 대 ‘채식=금육’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나우라 테일러는 “‘자연(nature)’은 동물 착취 및 상품화를 정당화하는 이들이 사용하는 가장 흔하고 강력한 수사학적 도구 중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육식동물이 다른 동물을 먹는 것이 자연스럽듯 인간이 다른 동물을 먹는 것 또한 자연스럽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는 ‘육식=자연’의 수사는 “비건은 순진하다는, 즉 자연에 반하려 한다는 통상적인 감각”을 유포함으로써 동물 섭취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테일러가 적절히 지적하듯, 인간은 “다른 존재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공감을 경험하며, 윤리적 선택을 하도록 진화해 온” 종이다. 그는 “고기에 대한 욕망이 ‘인간 본성’의 일부라면, 우리가 사는 방식을 질문하고, 정의에 대해 생각하고, 도덕적 삶의 진전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것 또한 ‘인간 본성’을 구성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²³⁾ 수많은 비/인간 동물의 피를 연료로 삼아 유지되는 가부장제-자본주의 체제와 인간지배제(anthroparchy)에 저항하는 채식주의자/비건들은, 바로 이 ‘자연’이라는 관념 자체를 ‘파괴’해야 한다. 자연이라는 수사를 활용해 채식 실천의 윤리-정치적 의의를 깎아내리고 육식 관행을 정당화하는 이들에 맞서, 영혜는 동물의 사체를 입에 대지 않은 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모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비건 퀴조이의 방식으로 저항한다(32-33).

우리는 그 저항이 불러일으킨 비극적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비건 퀴조이로서 영혜의 저항이 아버지를 위시한 가족들의 폭력으로 귀결된 뒤에도, 영혜는 저항을 멈추지 않는다. 연작소설인 『채식주의자』

23) 수나우라 테일러, 이마즈 유리·장한길 역, 『짐을 끄는 짐승들』, 오월의봄, 2020, 273-274, 278쪽.

의 마지막을 이루는 「나무 불꽃」에서 영혜는 동물의 살을 취하는 육식뿐 아니라 채식마저 중단함으로써 종속영양생물로서 인간의 운명 자체에 저항하는 소위 ‘식물-되기’의 지점으로까지 나아간다.²⁴⁾ 그러나 내가 더욱 주목하고 싶은 대목은 「몽고반점」에 등장하는, 온몸에 형형색색의 꽃을 새긴 채 형부와 섹스를 하는 영혜의 관능성이다. 처제인 영혜의 엉덩이에 아직도 몽고반점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성욕과 매혹을 느끼던 형부는 “푸른 꽃”과 같은 영혜의 몽고반점에 대한 상상으로 부터 촉발된 “별거벗은 남녀가 온몸을 꽃으로 칠하고 교합하는” 이미지를 영상예술 작업으로 구현하기 위해 영혜를 설득한다(74). 이후 바디페인팅을 위해 옷을 모두 벗은 영혜의 나신 위에 찍혀 있는 몽고반점을 실제로 보았을 때 형부는 “그것이 태고의 것, 진화 전의 것, 혹은 광합성의 흔적 같은 것을 연상시킨다는 것을, 뜻밖에도 성적인 느낌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식물적인 무엇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101). 그는 “단순한 성욕”을 넘어서 이 모종의 “감동”이란 영혜의 신체가 “모든 욕망이 배제된 육체”, “구석구석 일체의 군더더기가 제거된 육체”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한다(106).

이러한 그의 생각은 어딘가 익숙하다. 그의 판단은 채식주의를 금육주의와 등치시키는 기왕의 인식과 몹시 닮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영혜의 신체를 모든 욕망이 소거된 상태로 해석한다면, 형부의 후배인 J와의 섹스나 형부와의 섹스에서 영혜가 뿜어내는 강렬한 에로스와 관능성을 적절히 설명하기 어렵다. 나아가 「나무 불꽃」과의 연작 관계 속에서, 「몽고반점」에 나타난 “거대한 식물들의 교합과 같은 그로테스크한”

24) Soo Jin Park, “Posthuman Metamorphosis in Han Kang’s *The Vegetarian*,” 『비교한국학』 27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9; 김선영,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까르멘 보우요사의 『사라지는 게 더 나아』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변신 서사로서의 ‘식물-되기’」,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2권 3호,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21; 강지희, 「환상이 사라진 자리에서 동물성을 가진 ‘식물-되기’」, 『파토스의 그림자』, 문학동네, 2022; 이아름, 「내재성의 철학과 문학의 생성적 힘」, 『인문과학』 101집,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6 등 참조.

(127) 이미지가 영혜로 하여금 동물 신체가 가지는 본질적인 폭력성을 깨닫고 절식(絶食)을 통한 식물-되기로 나아가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애초에 그러한 교합을 가능케 한 영혜의 ‘욕망’—이명호의 표현을 빌리자면 “식물적 섹슈얼리티”²⁵⁾—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었는지 되물을 필요가 있다. 즉 규범적인 사회의 시선에서는 결코 성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조건에 관한 근원적인 물음을 가능케 함으로써 인간-동물 관계에 대한 재사유를 추동하는 ‘관능적’인 것의 정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레타 가드와 오드리 로드, 그리고 패트리스 존스의 논의를 지대 삼아 이 비규범적 욕망을 퀴어 에로스로 해석한다. 가드는 퀴어 생태학의 토대를 닦은 저술로 공히 인정받는 「퀴어 에코페미니즘을 향하여」에서 계급주의,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종차별주의, 비장애주의 등이 맞물려 형성하는 거대한 억압의 교차적 체제를 이론화하는 데 성공한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사유를 계승하는 동시에, 이들이 섹슈얼리티의 차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억압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기제 중 하나인 에로스혐오(erotophobia)를 적절히 포착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서구 문화는 에로틱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강력한 나머지 오직 하나의 섹슈얼리티와 하나의 채워만을 특정한 법적·종교적·사회적 제재 속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데, 이를 통해 (재생산을 목적으로 한) 이성애적 욕망만이 특권화되고 그 밖의 모든 퀴어한 욕망들은 비체화된다.²⁶⁾ 한편 로드는 사회가 기존의 억압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세계를 꿈꾸는 혁명의 도구이자 삶의 원천인 에로스를 특정한 형태로 구속하며, 이러한 구속에서 벗어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에로스를 해방시키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기쁨의

25) Myungho Lee, “An Eco-Ethical Project of “Becoming” a Plant,” 『비평과이론』 25권 2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20, 114쪽.

26) Greta Gaard, “Toward a Queer Ecofeminism,” *Hypatia* 12(1), 1997, pp. 118-119.

나눔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²⁷⁾ 이러한 논의들을 이어받은 존스는 에로스에는 육체적 사랑이나 성적 욕망을 초과하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에로스의 귀여운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재생산적 이성애만을 특권화하는 이성애규범적 사회 질서를 의문에 부치는 동시에, 에로스를 통한 관계 맺음을 인간들 사이의 것으로 한정하는 인간중심주의에 저항하면서 비인간 동물과의 연결을 재사유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존속을 위해 개인에게 ‘강요’되는 소비를 향한 욕망을 연결을 향한 욕망으로 치환하게 해 준다.²⁸⁾ 이처럼 에로스를 탈인간중심주의적인 것으로 사유할 때, 우리는 동일한 지배 체제 아래에서 고통받는 취약한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 사이의 돌봄, 협동, 책임 같은 “존재의 그물 속 상호의존”을 인식하고 자연과의 더 정의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²⁹⁾

마찬가지로 「몽고반점」에서 영혜의 신체를 일체의 욕망이 소거된 금욕적인 비건의 신체가 아니라 욕망의 재배치를 통해 귀여 에로스를 발산하고 연결을 증식하는 비건의 신체로 해석할 때, 우리는 동물 신체를 가진 영혜가 에로스의 잠재력을 현동화해 비인간 동물을 섭식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기존의 상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나아가 포식적 존재라는 인간의 근본 조건 자체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저항의 방식을 구상한다는 사실을 보다 적절히 읽어 낼 수 있다. 영혜의 채식과 절식이 ‘상식적’인 이들에게는 그저 병리적 증상으로만 인식되겠지만, 규범을 상징하는 시간과 중력의 방향을 거슬러 “모든 이차성징이 사라진 기이한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물구나무서는(177), 그리하여 종속영양생물이라는 굴레로

27) 오드리 로드, 주해연·박미선 역, 『시스터 아웃사이더』, 후마니타스, 2018, 69-80쪽.

28) 패트리스 존스, 「에로스와 생태수호의 메커니즘」, 캐럴 J. 애덤스·로리 그루언 편, 김보경·백종륜 역, 『에코페미니즘』, 에디투스, 2024, 231-259쪽.

29) Michael J. Clark, “Sex, Earth & Death in Gay Theology,” *UnderCurrents*, Vol. 6, 1994, pp. 34-35.

부터 벗어나려는 「나무 불꽃」 속 영혜는 “불가사의한 미소”(186)를 지음으로써 그것이 죽음의 공포를 상회하는 기쁨과 퀴어 에로스의 실천임을 드러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채식주의자』의 성취이자 동시에 한계로도 읽힐 수 있다. 『채식주의자』는 ‘채식=금욕’의 논리와 그 밑바탕을 이루는 ‘육식=자연’의 논리에서 벗어나 인간의 조건에 관한 근원적 사유에 가 닿는데 성공하지만, 그러한 탈주가 궁극적으로 에로스의 근원인 동물 신체 자체를 부정하는 죽음과 탈신체의 형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묘사한다는 점에서 채식주의/비거니즘의 윤리-정치적 지향을 제시하는 데 실패하는 듯 보이는 까닭이다. 이 지점에서 “종을 횡단하는 소통의 경험 이야말로 비판적 에코페미니즘의 핵심”이라는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속 가드의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 가드는, 인간의 정체성을 일면적으로 정의하는 동물중심주의(zoocentrism)를 비판하고 식물의 행위성과 인간-식물 친족관계를 인정하는 비판적 식물 연구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식물적 존재론에 대한 주목이 인간의 관계적 자아에 대한 (재)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³⁰⁾ 이는 가드에게 큰 영감을 준 원천으로 자주 언급되는 베스 스티븐스와 애니 스프링클의 에코섹슈얼리티 작업과도 연결되는데, 이들에게 자연은 “더 상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합을 만들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행위성을 가진 존재에 해당한다.³¹⁾ ‘어머니 자연’이라는 낡은 수사를 폐기하고 대신 지구를 자신의 ‘애인’으로 삼는 에코섹슈얼리티는 자연이라는 협력자를 존중, 애정, 관능의 마음으로 대하는바, 존스가 말하는 (동물중심주의적인) 퀴어 에로스를 다시 한번 퀴어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그렇다고 할 때, 『채식주의자』에 등장하는 이른바 ‘식물-되기’를 퀴어 에로스와의 관련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미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30) 그레타 가드, 김현미 외 역,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창비, 2024, 46, 102-104쪽.

31) Beth Stephens and Annie Sprinkle, “The EcoSex Manifesto 2.0,” *CSPA Quarterly*, No. 17, 2017, p. 7.

하지만 『채식주의자』는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육식의 은유화를 통한 동물의 부재지시대상화를 노정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특히 『채식주의자』는 포식자로서 인간의 조건에 관한 물음을 예각화하는 소설의 후반부로 갈수록, 영혜의 꿈을 통해 제시되었던 비인간 동물의 처우에 관한 윤리-정치적 물음을 소거시킨다. 『채식주의자』에 달린 여러 비평적 주석들이 포식자로서 인간의 조건을 성찰하는 가운데서도 동물을 다시 한번 부재지시대상으로 만든다³²⁾고 할 수 있다면, 동물에 대한 관심을 주변화하지 않는 동시에 채식 소설의 윤리-정치적 지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글은 식물-되기가 제시할 수 있는 모종의 새로운 인간 정체성, 주체성, 관계성을 넘어 또 다른 인간의 조건을 사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악어의 공격으로부터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경험을 통해 피식자(preys)로서 인간의 조건을 성찰하게 됐던 발 플럼우드³³⁾의 사유와 닮아 있으면서도 그와 다른 결론을 제시하는, 즉 인간 역시 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통해 역설적으로 비거니즘의 윤리-정치적 의의를 강조하는 소설들이 한국 문학장에는 존재한다.

3. 피식자와 동료 생명체

조예은의 「고기와 석류」(『릿터』, 2021.8)는 오직 인간의 고기를 통해서만 영양을 적절히 섭취할 수 있는 좀비 또는 구울인 석류를 보살피기 위해 석류에게 얼마 전 죽은 남편의 시체를 음식으로 건네는 옥주의 모습을 그린다. 이 지점에서 작중 사람의 시체를 음식으로 치환하는 옥주의 모습이 어딘가 비윤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옥주가 인육 전에 석류에게 주었던 소나 돼지 같은 다른 동물의 살점이

32) 송다금, 「한국 서사 장르의 동물 담론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35쪽.

음식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렇다면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이 질문은 탈인간중심주의적인 독법이란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이 똑같이 지방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전제 아래, 그러한 섭식가능성이 제기하는 복잡한 윤리-정치적 문제에 응답하려는 노력을 통해서만 도출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행해지는 식인의 정당성을 비판적으로 되묻는 소설부터 인간을 잡아먹는 다양한 초현실적 존재가 등장하는 소설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학사에서 인간의 신체를 섭취하는 인간(화된) 동물의 형상은 꽤 자주 등장해 온 편에 속한다. 이 장의 논의는 바로 이 식인 모티프에서 출발한다.

이상옥의 「어느 시인의 죽음」(『기린의 심장』, 교유서가, 2021)은 어느 날 질량을 가진 모든 것을 포식하는 외계 종족 가브가 지구에 나타나면서 시작된다.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인간이야말로 가장 맛있는 “최고의 식재료”라 여기는 가브는 인간들에게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모든 ‘가브’의 마음을 담아 경의를 표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때 인류 대표로 가브와 협상에 나선 미국인 M. 프리드먼은 인간도 동물을 식량화해 온 역사가 있기에 “식육을 죄라고 할 자격”은 없지만, “각자의 문명을 이룩한 존재로서 교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한다(11-12). 몇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인류는 가브가 주문하면 언제든지 인간을 식재료로 공급하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관련자가 아닌 모든 인간들의 기억을 지워 가브의 존재를 숨기기로 결정한다. 작품의 서사는 이 협상이 마무리되고 수십 년이 흐른 뒤, ‘적절한’ 인간을 찾아 가브에게 제공하는 일을 대리하는 대수가 ‘위로’라는 시인의 의무를 다하는데 인생을 걸었다는 고등학생 용천을 찾아오면서 본격화된다. 대수는 새로 발명된 #3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주입한 뒤 그 인간을 가브가 섭취하게 함으로써 가브를 멸종시키려는 계획을 용천에게 털어놓는다. “성적도 별로고, 가난하고, 미래도 없고, 무엇보다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용천이 가브에게 먹이로 제공될 ‘적격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27). 처음에는 고민을 하던 용천은 결국 대수의 제안을 승낙한다. 그러나 가브에게 인간을 제공하고 ‘커미션’을 받는 데 회의감을 느껴 왔던 대수는 용천 대신 자신의 허벅지에 #3 주사를 놓고 스스로 가브의 먹이가 된다. 소설은 산 채로 껍질을 벗겨 내야 고기가 맛있는데 인간들이 비명을 너무 지르므로, 인간들의 제안대로 #3를 미리 인간-먹이에게 접종하게 했다고 낄낄거리는 가브들의 대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이 소설은 외계 종족의 등장으로 인간이 포식자에서 피식자로 그 지위가 전환된다는 꽤 익숙한 SF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이 글의 맥락에서 눈여겨볼 점은 피식자인 인간을 대하는 가브의 태도다. 가브는 ㉠ 지구에 처음 등장했을 때 피식자인 인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다. 또한 ㉡ 인간-먹이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비명을 지르지 않도록, 즉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 가브는 실제 인간-먹이를 요리하고 섭취하는 과정에서 낄낄거리는 모습을 보여 주는 등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에서 볼 수 있듯 가브는 피식자인 인간들에게 겉으로는 감사와 존중과 경의를 표하지만, ㉡와 ㉢에 드러나듯 실제로는 피식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려는 조치조차 자신들의 이익—맛—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피식자의 취약성을 조롱하기도 하는 등 감사, 존중, 경의와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인다. 이 소설이, 인간이 비인간 동물을 가축화해 섭취해 온 육식의 역사를 비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가브가 인간을 포식하는 상황을 설정했다고 한다면, 소설에서 가장 부각되는 비판점은 바로 이 피식자에 대한 존중의 결여라고 할 수 있다.

이 존중의 태도와 관련해 플럼우드의 논의는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술했듯 플럼우드는 1985년 호주의 한 국립공원에서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인간의 포식자인 악어에게 세 차례 공격을 받았다가 가까스로 생존한 충격적인 경험을 한 바 있다. 그는 이 경험이 인간 역시

“육즙과 영양분이 풍부한 몸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피식자로서 순환적 생태계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깨닫게 했다고 고백한다. 그는 이처럼 포식자인 동시에 피식자로 존재한다는 (오랫동안 잊혀 왔던) 인간의 생태적 정체성에 대한 재/각성이 “인간은 다른 존재와 구별되고 먹이가 되기에는 너무 우수하다고 믿는 지배적 문화의 신념”, 즉 자연/문화 이원론에 기반한 인간쇼비니즘(human chauvinism)을 배격하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처럼 인간종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재사유할 때 “다른 동물과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는 먹이”이면서 “동시에 먹이 그 이상”이다. 이와 같이 비인간 동물이 “먹이 그 이상”이라는 점을 근거로 피식자를 ‘존중’한다면, 탄생부터 죽음까지 비인간 동물의 삶을 총체적으로 억압하는 공장식 축산농장에서 자란 비인간 동물의 사체를 “먹이”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플럼우드스는 바로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면서 이를 준채식주의(semi-vegetarian) 입장이라고 명명한다.³³⁾

그러나 플럼우드스의 논의 안에서 인간이 피식자로서 취급되거나 순환적 생태계의 먹이사슬에 기여하는 상황은, 플럼우드 자신이 겪은 악어의 습격 정도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인간이 죽은 뒤 그 시신을 곤충을 비롯한 여러 동식물이 영양분으로 취하는 상황뿐인 것이다. 이는 플럼우드스가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는 먹이이고 동시에 먹이 그 이상”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그가 제시하는 소위 인간-동물의 ‘호혜적’ 관계는 사실상 ‘살아 있는’ 인간을 피식자의 위치에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³⁴⁾ 준채식주의 입장에 따라 공장식 축산농장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면 비인간 동물의 살을 충분히 “먹이”로 취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살아 있는 인간이 “먹이”로 취급

33) 발 플럼우드, 김지은 역, 『악어의 눈』, yeondoo, 2023, 31, 53, 201쪽.

34) 백중륜(2024), 앞의 책, 74쪽.

될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는 플럼우드의 논의는 그의 표면적인 주장과 달리 생태동물주의의 “인간과 동물의 상호성과 평등, 호혜를 강조하는 원칙”, 즉 그가 거듭 힘주어 말하는 존중의 원칙을 스스로 위배한다. 만약 그의 존중이 “우리 자신을 생태계의 다른 구성 요소와 같은 방식으로 유용성의 측면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즉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도 다른 존재의 먹이로 여기기 시작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면,³⁵⁾ 이 존중의 실체를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인간이 피식자로 존재하는 다른 사변적 이야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듀나의 「브로콜리 평원의 혈투」(『브로콜리 평원의 혈투』, 자음과모음, 2011)는 외계 바이러스로 북한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주변국에서는 이 전염병이 자국으로 퍼지는 것을 막고자 북한에 생화학 무기를 살포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은 뒤, 어느 한 행성에서 남한 밀항자 청수와 북한 탈출자 진수가 “혈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 행성에 도착한 후 청수는 식량을 찾아보지만 그가 ‘브로콜리’라고 이름 붙인 초식동물을 비롯해 열매, 버섯, 풀, 뿌리까지 이 행성에 거주하는 모든 동식물을 청수는 먹을 수 없다. 동물에게는 살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식물을 섭취하면 곧 구토와 설사를 했기 때문이다. 점점 굶주려 가던 청수는 어느 날 진호와 그가 이끄는 십여 명의 어린아이 무리를 목격하고, 곧 그들이 북한을 탈출한 ‘빨갱이들’, “질병과 죽음을 우주로 가져”온 “세균덩어리 괴물”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172). 한편 그보다 앞서 이미 청수의 존재를 발견했던 진호는 함께 살던 영우라는 이름의 13세 소년이 소총과 함께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을 다른 아이로부터 전해 듣는다. 진호가 영우를 찾아 나서려 할 때, 두 발의 총성이 들려온다. 그리고 진호는 브로콜리 무리 옆에서 바지가 반쯤 벗겨진 영우의 시체를 발견한다. 청수가 영우의 허벅지 살을 도려내 가져간 것을 목격한

35) 플럼우드, 앞의 책, 52-53쪽.

진호는 “욕지기”를 느낀다(185).

청수는 칼로 도려내 가져온 영우의 살점을 “더 이상 고기처럼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잘게 자른다. 인육에서 인간 생명의 흔적을 지우려는 이러한 부재지시대상화를 거친 뒤, 그는 “언젠가 저것들을 먹어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어서 그는 영우가 먼저 소충을 들고 달려들어 자신은 “정당방위”로 아이를 죽였을 뿐이며, “어차피 그대로 두면 초록색 개들이 브로콜리 대신 시체를 뜯어먹”었을 것이므로, 자신의 행동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한다(186-187). 이후 청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찾아온 진호 역시 혈투 끝에 청수의 손에 죽음을 맞고, 청수는 그의 시체를 해체해 또다시 고기로 취한다. 청수는 “말린 사람고기”(194)를 먹으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아이들을 ‘사냥’하러 나서지만, 이윽고 아이들의 기슭으로 고문을 당하다 결국 죽음을 맞는다. 이처럼 식량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정당방위”로 같은 인간을 죽인 뒤 그의 살점을 사후(死後)에 음식으로 취했다면, 청수의 행동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이들은 이러한 식인을 “구역질” 나는 “끔찍한 괴물성”의 징후로 받아들일 것이다.³⁶⁾ 그러나 이와 비슷한 상황을 가정한 뒤 피식자를 배려/존중하는 식인자라는 형상에 관한 사고실험을 펼쳤던 랄프 아캄포라가 적절히 분석했듯, 플럼우드의 이론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경우, 청수가 피식자로 전환된 영우와 진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존중을 표했다면 그의 행동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³⁷⁾

그렇다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먹는 것까지 용인하게 될 수 있는 이 존중을 토대로 플럼우드와 같이 준채식주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 “비건 레즈비언 장편 로맨스”를 표방하는 김나래

36) 박진, 「장르문학의 정치성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듀나, 『브로콜리 평원의 혈투』, 자음과모음, 2011, 378쪽.

37) 랄프 아캄포라, 「배려하는 식인자와 인간/인도적 축산업」, 애덤스·그루언 편, 앞의 책, 380-383쪽.

의 『육식주의자들』(감자와토마토, 2021)은 “인육은 먹어서 플렉시테리언”(66)이라고 자신을 공공연히 소개하는 수민의 이야기를 통해 존중이 육식 옹호의 근거로 사용되는 양상을 비판한다. 소설은 수민이 실제로 ‘인간농장’에서 인육을 수입해 섭취하는 식인자이며, 그런 수민을 사랑하게 되면서 비건이었던 유리가 견잡을 수 없이 식인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 중국에는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어머니를 살해해 섭취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룬다. 어머니를 살해한 직후 유리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육식을 하는 날이면 식사를 앞두고 했던 “기도를 가장한 탄식”을 떠올린다. “안쓰럽고 가여운” 이 비인간 피식자들이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길 바라는 기도 끝에, 어머니는 유리에 “너는 생명을 감사하게 먹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렇게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라고 말하곤 했던 것이다. 유리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 죽은 어머니를 향해 “안쓰럽고 가여운 나의 엄마”라고 어머니의 기도를 그대로 되돌려 준다(220-222). 피식자에게 연민과 존중을 표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육식을 정당화한다면, 유리의 식인 역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소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소설의 핵문(核文)은 인육을 불법 수입했다는 혐의로 수민이 체포되고 유리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유리가 모친을 살해해 포식했다는 사실을 자백하자 점심에 설렁탕을 먹었다는 형사가 구역질을 하는 장면 직후에 등장한다. 여기에서 유리는 “형사님이 점심에 드신 것도, 누군가의 어미였거나, 아버지였거나 자식이었다”고 말한다(248). 이 장면은, 소설 전반부에서 <Being Aware of Human's Thigh>라는 제목의 “고기 조각을 포크로 찢어 먹는 여성의 입을 크게 확대하여 출력한” 수민의 흑백사진 작업을 보고 인간의 허벅지 살을 먹는 광경으로 인지해 경악하던 유리에 수민이 했던 말을 상기시킨다. 이 작업은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라는 것이 사람의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여지를” 줌으로써, 감상자가 “잔인하다고 느낄수록 동물 사체를 소비하는 것에 어떤 죄책감 같은 것을 느껴

서 덜 소비할까 싶어” 창작한 것이므로, 유리의 경악은 자신이 바랐던 바이기도 하다고 수민은 말했던 것이다(64-65). 『육식주의자들』이라는 소설 텍스트 역시 마찬가지다. 『육식주의자들』은 동물을 먹을 수 있고 먹어도 되는 존재로 규정하는 인간중심주의의 언어를 탈취해 동물의 자리에 인간을 대입하는 전략을 취한다. 그리하여 인간이 섭식가능한 존재로 규정되는 것을 독자가 비윤리적이라고 느끼는 꼭 그만큼, 탈인간중심주의의 지평에서 바라볼 때 동물을 섭식가능한 존재로 규정하는 것 역시 비윤리적이라는 사실을 독자가 스스로 깨닫게 만든다.

피식자로서 인간의 조건을 되짚는 이러한 사유는 코라 다이아몬드의 「육식과 식인」의 논의와 함께 읽을 때 한층 더 풍성해진다. 다이아몬드는 동물의 고통과 권리에 주목했던 피터 싱어의 공리주의 논변과 탐 레건의 의무론적 논변 모두와 거리를 둔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유의 논변들은 고통과 권리를 근거로 우리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인간을 죽이거나 고통을 가하지 않는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 이 인간이 지닌 권리를 비인간 동물에게 확장하려 시도한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법인데, 무엇보다도 이는 “권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을 도외시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는 죽은 인간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예컨대 인간은 사고를 당해 이미 사망한 다른 인간의 신체를 섭취하지 않으며, 사지 중 일부가 잘려 나갔다고 해서 그 절단된 신체를 섭취하지도 않는다. 즉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고통을 가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인간은 식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이아몬드는 고통이나 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제3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³⁸⁾

그렇다면 인간은 어째서 식인을 비도덕적 행위로 감각하고 그것을 기

38) Cora Diamond, “Eating Meat and Eating People,” *Philosophy*, Vol. 53, No. 206, 1978, p. 467.

피하는 것일까? 다이아몬드는 ‘인간에게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식의 권리 담론보다 앞서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해, 즉 ‘인간(person)은 먹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인간의 공통감각을 제시한다. 이 같은 공통감각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인간과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의 형식들이다. 예컨대 인간은 서로에게 말을 건네고 이름을 붙이며 죽음을 애도하고 장례를 치른다. 이러한 삶-관계의 형식들이 모여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 그리고 ‘인간은 먹을 수 없다’는 관념 자체를 구성한다. 다이아몬드는 “동료 생명체(fellow creature)”라는 표현을 통해 동물도 마찬가지로 주장한다. 동물은 단순히 고통을 느끼는 감응력 있는 존재일 뿐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죽고 우정을 나누고 세상을 공유하는 존재다. 그는 우리가 어떤 존재를 어떤 관계 속에서 인지하고 감각하는지, 그 관계가 인간-동물이 얹혀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서둘러 덧붙이건대 이는 기존에 존재하는 삶-관계의 형식들, 이를테면 소를 음식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상식의 상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다이아몬드는 인간이 (마치 반려동물을 먹을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름 붙이고 함께 살아가고 애도하는 존재로서 (반려동물뿐 아니라 다른) 비인간 동물을 위치시킬 수 있는 도덕적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동물은 먹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유에 가닿는 데로 독자들을 초대한다.³⁹⁾

앨리스 크레리는 이러한 다이아몬드의 논의를 이어받으면서, 문학이 상상력을 통해 인간과 동물 사이의 “도덕적 친연성(moral kinship)”과 “도덕적 동료성(moral fellowship)”을 감각하는 데로 이끌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그는 문학 작품이 어떻게 ‘문학으로서’ “건전한 도덕적 사유”와 “윤리학이 추구하는 합리적 이해”를 촉발하는 데 기여하는지 설명하면서, “도덕적 이해의 성장에 필수적인 감정적 응답능력

39) Ibid., pp. 468-469, 474.

(emotional responsiveness)”과 감수성을 형성하는 문학의 역능에 주목한다.⁴⁰⁾ 다시 말해, 동물 억압의 근간이 되었던 이성/감정 이분법⁴¹⁾을 넘어서 인간-동물 관계의 도덕적 문제들을 살펴보려면 양자를 결합한 광의의 합리성에 대한 함양이 필요하며, 문학이 바로 이 함양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삶의 형식과 동물의 삶의 형식이 공유하는 파토스와 취약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신체적 안녕”을 보장받고 “중-전형적 능력들을 자유롭게 발달시킬 수 있는” 조건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중요하다며 이것이 양자의 도덕적 친연성/동료성을 성립시킨다고 설명한다. 이때 그가 말하는 인간종에게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전술한 “감정의 성장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광의’의) 합리성 발달”로서, 이를 차단당하는 것은 비인간 동물들이 “사슬, 우리, 학대로 인해 번영의 기회를 놓치는 것”만큼이나 인간에게 치명적이다.⁴²⁾

이 글의 맥락에서 흥미로운 것은, J. M. 쿣시의 『추락』에서 평생 육식을 해 왔던 주인공 데이비드가 자신의 신체적 취약성과 동물의 신체적 취약성 사이의 감정적 동일시를 통해 동물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채식주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크레리가 분석하는 대목이다. 그는 데이비드가 자신의 신체적 취약성을 깨닫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 도살당하는 두 명의 양을 먹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는데, 이는 데이비드가 이들을 “죽음이라는 운명을 기다리는 개별 존재”로 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⁴³⁾ 여기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종과 종 사이의 집단적 관계뿐 아니라 개체와 개체 사이의 개별적 관계가 인간-동물 관계를 둘러싼 도덕적 상상력의 발휘, 즉 비인간 동물을 동료 생

40) Alice Crary, *Inside Eth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pp. 204, 206-207, 227.

41) 캐럴 J. 애덤스·로리 그루언, 「에코페미니즘의 기반」, 애덤스·그루언 편, 앞의 책, 25쪽.

42) Crary, op.cit., p. 232.

43) Ibid., p. 231.

명체로 감각함으로써 ‘동물은 먹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감수성의 함양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임선우의 「환하고 아름다운」(『악스트』, 2021.11)에서 해파리냉채가 더 이상 음식으로 여겨지지 않는 상황은 해파리들이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먹을 수 있는 존재’이지만, 인격/개성을 가지고 인간과 관계 맺어 왔던 ‘동료 생명체’로서 피식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과 관련된다. 다이아몬드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 ‘인간/인격체(person)’라는 개념이 “수많은 정서와 도덕적 관계를 포함하는 도덕적으로 풍부한 개념”⁴⁴⁾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인격/개성(personhood/personality)을 가진 존재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처럼 비인간 동물을 “개성도, 유일성도, 특수성도, 특이성도 없”는 질량명사(mass term)⁴⁵⁾로 환원하는 육식문화의 힘에 맞서, 동물에게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격/개성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동물을 섭식가능한 존재 그 이상의 삶의 의미를 가진 존재로 자리매김한다. 예컨대 조세희의 「강을 못 지킨 나」(『시간여행』, 문학과지성사, 1983)에서 황금붕어의 고통스러운 삶과 역사를 곱씹히 생각하던 ‘뽕추’가 결국 그 황금붕어를 넣고 끓인 찌개를 차마 입에 대지 못하는 장면은 비인간 동물에게 개성을 부여하는 행위가 섭식가능성에 대한 문화적 합의를 뒤흔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한편 예주의 『후구의 초상』(플래어드, 2021) 속 화자는 횃집 수조 안에 사는 복어에게 후구라는 이름을 붙여 준 뒤 그와 눈을 맞추고 서로를 들여다봄으로써 일대일의 관계를 맺는다. 작가/화자가 직접 그린 후구의 모습이 작품 곳곳에 배치되면서, 후구는 음식이 아닌 독자성과 유일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 부각된다. “후구의 맛이나 조리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라도 “그의 성격이나 외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는 화자(18)가 결국 후구를 횃집 수조에서 구출하는 데

44) Carlo Alvaro, “Ethical Veganism, Virtue, and Greatness of the Soul,” *Journal of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Ethics*, Vol. 30, No. 6, 2017, p. 769.

45) 캐럴 J. 애덤스, 김현지 역, 『인간도 짐승도 아닌』, 현실문화, 2022, 77쪽.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자는 후구의 죽음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애도한다. 로리 그루언은 주디스 버틀러를 원용해 동물에 대한 애도의 실천이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이 취약성과 불확실성이라는 공통의 삶의 조건을 가지는 공동체의 구성원, 즉 동료 생명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고 설명한다.⁴⁶⁾ 인간과 마찬가지로 피식자라는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비인간 동물의 죽음을 공적으로 기억하고 애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탈인간중심주의적인 공동체의 수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될 때 인간 사회는 대량학살 즉 살처분으로 대응한다. 산 채로 구덩이에 파묻히는 비인간 동물의 고통은 ‘XXX만 마리 폐사’라는 보도에서처럼 숫자로 환원될 뿐, 구체적인 실물로서 드러나지 않는다. 서이제의 「두개골의 안과 밖」(『자음과모음』, 2021.6)은 변이 바이러스의 창궐로 수많은 새들, 특히 공장식 축산농장의 닭들이 살처분되는 참혹한 장면을 끈질기게 묘사한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인간의 언어로 쓰인 인간의 문학은 닭의 감각을 결코 오롯이 표현해 낼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통감한다. “닭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건 인간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나를 붙잡아 쓸 수 없음”이라는 구절이 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173). 그러나 인간의 언어를 부여하고 투사해 동물의 언어를 해석하는 의인화를 포기하고 의인화에 따른 과잉해석의 위험성을 감수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동물에 대한 공감을 중단하는 행위이자,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동물의 능력과 욕망을 박탈하는 행위인지도 모른다.⁴⁷⁾ 김은의 「오늘의 기원」(『무민은 채식주의자』, 걷는사람, 2018)에서 고작 70일의 수명을 가지고 태어난 육계(肉鷄) 화

46) 로리 그루언, 「죽음을 직면하고 슬픔을 실천하기」, 애덤스·그루언 편, 앞의 책, 308-309쪽.

47) 의인화에 대한 일반론적인 비판과 성찰적 인간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의인화/의 동물화의 옹호는 황지선, 「인간으로 동물 되기」, 『인문과학연구』 54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5, 4-9쪽 참조.

자가 인간의 언어로 담담하게 진술하는 것은 인간이 강제한 수명 따위로 길들여지지 않는 생의 욕망이 비인간 동물에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엄연하고 엄중한 사실이다. 우리는 의인화가 가지는 수다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러한 비인간 동물의 생의 의지를 ‘경청’하고 이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기로 환원된 동물을 탈-부재지시대상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기술만능주의적 해법과 세계관의 변화

다시 한번 서론에서 언급한 애덤스의 말을 인용해 보자. 애덤스는 아직 “고기의 의미가 지니는 본질, 곧 동물의 죽음 없이는 아무도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고 썼다.⁴⁸⁾ 그러나 인간-동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주요 행위자 중 하나인 과학기술 담론은 배양육을 통해 “죽음 없는 육식의 탄생”⁴⁹⁾을 거론하면서, 고기의 의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정의되리라 예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동물 관계의 존재론적 특성을 규정하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채식/육식 관행을 다룬 한국 소설들은 미래에 대해 어떤 상상력을 보여 주고 있을까? 이 지점에서 인간의 육식 관습이 기후변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지구 시스템이 더 이상 그러한 관습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한계에 봉착했다는 위기의식이 오늘날 채식주의/비거니즘과 배양육 기술을 일종의 ‘대안’으로서 주목하게 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후변화가 초래할 잠재적/극단적 결과에 대한 사유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서적·윤리적·실천적 질문을 던지는 문학 장르인 기후소설(Cli-fi)에 나타난 음식의 상

48) 애덤스(2018), 앞의 책, 104쪽.

49) 체이스 퍼디, 윤동준 역, 『죽음 없는 육식의 탄생』, 김영사, 2021.

상력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⁵⁰⁾

김기창의 소설집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민음사, 2021)과 이 책에 수록돼 있는 ‘돔시티’ 3부작은 2020년대 들어 활발히 창작되기 시작한 한국 기후소설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작품들로 손꼽힌다. 돔시티 3부작을 구성하는 「하이 피버 프로젝트」, 「갈매기 그리고 유명과 함께한 하루」, 「개와 고양이에 관한 진실」은 한낮 평균 기온이 54°C, 체감 기온이 73°C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으로 가열된 지구를 배경으로 한다.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이 같은 극한 기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류는 “인종, 민족, 종교, 재산, 교육 수준, 전과 유무 등”(26)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안정적인 기후를 유지할 수 있는 돔시티 내부에 살 자격이 있는 거주자와 그렇지 않은 추방자를 분류한다. 김기창은 이러한 내부와 외부의 구획과 분리가 이 아포칼립스적 세계관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어떠한 윤리-정치적 질문들을 제기하는지 탐구한다. 그런데 이 글의 맥락에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이 돔시티 내부와 외부에 살고 있는 이들이 과연 무엇을 먹으며 생존하고 있는가이다. 돔시티 외부가 비단 인간뿐 아니라 다른 동식물도 살기 어려운 극한 기후임을 고려하면, 또 돔시티 내부 역시 이미 “인구 포화”(66) 상태이기에 육식을 위해 비인간 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해 본다면, 이들이 무엇을 먹으며 생존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돔시티 3부작에서 외부의 생존자들은 대체로 “추방자들의 저항과 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32)으로 돔시티 내부에서 배급하는 식료품을 먹고 사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돔시티 내부에서는 햄버거나 닭가슴살 버섯 리조토를 먹는 등 대부분 육식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73, 79). 흥미로운 것은 돔시티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개와 고양이

50) 진선영, 「인류세, 기후소설과 유스토피아」, 『문학과환경』 21권 2호, 문학과환경학회, 2022, 197쪽.

관한 진실」에 나오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는 「잠언」 15장 17절에서 그 이름을 따온 ‘1517 돔시티’가 다른 돔시티와 달리 육식 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90). 이는 과도한 플라스틱 및 인공화학물 사용으로 인간의 몸에 축적된 ‘느린 폭력’⁵¹⁾의 결과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썩지 않는 미래의 지구를 그린 조시현의 기후소설 「어스」(『AnA』, 2021.3)에 나타난 상상력과도 유사하다. 「어스」는 “2043년 제정된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사육, 목축, 양계가 금지”된 사회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83). 산업화된 식량 생산과 소비, 그중에서도 육식 관행이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 산림 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토양 및 수질 오염 등을 초래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기후소설에서 인간 사회의 상식의 상식을 다루는 것은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⁵²⁾ 김기창과 조시현의 소설은 모두 육식이 기후재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전자의 경우 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중의 문제를, 후자의 경우 인간으로 살고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다룬다. 다만 이 작품들에서 미래에 인간-동물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사유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후위기로 인한 행성적 파국 상황에서 인간이 (동물과 마찬가지로) 비천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인식이 도드라진다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하다.

이 디스토피아적 상상력의 반대편에 놓여 있는 것은 다소 ‘낙관적’인 정세라의 포스트-아포칼립스적 상상력이다. 정세라의 「리셋」(『목소리를 드릴게요』, 아작, 2020)은 유한한 회복탄력성을 가진 지구 환경을 마치 ‘값싼 자연’처럼 마음껏 이용했던 인간들이, 화석연료에 기반한 도시 문명을 닦치는 대로 먹어 치우는 거대 지렁이들의 출현을 통해 가까스로

51) 립 닉슨, 김홍욱 역, 『느린 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 에코리브르, 2020.

52) Esther Muñoz-González, “The Anthropocene, Cli-Fi and Food,” *Atlantis*, Vol. 43, No. 1, 2021, p. 41.

궤도를 수정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러 이 지령이들이 “모든 것이 잘못된 후 (...) 세계를 수정하기 위해”(75) 미래의 앤이 타임머신을 통해 과거/현재로 보낸 존재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소설은 이 추출주의(extractivism)의 리셋 이후 세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서술하기 시작한다. 이 글의 맥락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은 “인류가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을 다른 종들에게 내어” 주었다는 설정, 종차별금지법 도입 이후 반려동물을 포함해 가축화된 모든 동물이 인간의 지배와 예측으로부터 벗어나 해방을 맞이했다는 설정 등이다(80). 그러나 이처럼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을 다분히 유토피아적으로 그리는 「리셋」의 묘사는 문제적이다. 제3장에서 설명했듯 인간-동물의 관계 맺음 형식은 도덕적 친연성/동료성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삶을 의미 있게 해 주는 핵심 요소”인바, “관계를 끝내기보다 이를 개선하려 노력하는 것이 더 유익”한 지향점일 것이기 때문이다.⁵³⁾ 나아가 「리셋」이 말하는 인간과 동물의 분리는 애초에 비인간 동물에 대한 억압의 근간이 되었던 인간/자연 이원론의 “초분리(hyperseparation)”⁵⁴⁾를 거울상으로 뒤집어 다시 한번 상연하는 상상력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리셋이라는 (두 번째) 초분리 이후를 사는 사람들은 정확히 무엇을 먹는 것일까. 작품에서 이 점은 명확히 언급되지 않는다. 종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라 비인간 동물을 이용하고 소비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됐다면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비건인 것일까? 간접적으로나마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같은 소설집에 실린 정세랑의 「7교시」를 경유해야 할 듯하다. 미래의 시점에서 서술되는 「리셋」과 「7교시」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이미 지나간 과거로 표현한

53) 그루언, 앞의 책, 293쪽.

54) Val Plumwood, “Nature in the Active Voice,” *Australian Humanities Review*, No. 46, 2009, <https://australianhumanitiesreview.org/2009/05/01/nature-in-the-active-voice/> (접속일: 2025.07.20).

다. 미래의 윤리적 감각에서 볼 때, 동물 소비와 상품화가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는 지금-여기는 (제3장에서 살핀 식인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처럼) 구역질을 유발하는 역겨움 그 자체로 인식된다.⁵⁵⁾ 이처럼 미래인의 입장에서 기쁜 일이 있을 때면 동물의 사체를 양껏 포식하는 ‘과거’(=현재)의 문화가 역겨운 것으로 감각되는 까닭은 일견 배양 단백질 기술의 개발로 동물의 죽음을 수반하지 않는 식생활이 가능해졌기 때문인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7교시」는 21세기인들이 파국을 맞은 것은 “뭐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같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고 서술한다(221). 「7교시」에서 귀히 다루어져야 할 것은 기술의 발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기술만능주의적 낙관에 대한 이 같은 경계다.

과학기술학자 전치형·홍성욱은 미래는 주관성과 불확실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바 “해석과 논쟁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단지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적, 상업적, 정치적 행위”로서, 어떠한 미래가 지배적인 미래상이 되는지가 현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미래 담론이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만) 구성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미래를 과학기술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미래 서사의 제안을 통해 더 나은 미래상을 만들어 나가는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때 주목할 것은 “한 사회가 내놓는 미래에 대한 전망은 그 사회의 미래보다 현재에 대해 더 많은

55) 마티 킬은 자연을 존중(respecting)한다는 것은 자연을 다시-보는(re-specting)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간과 비인간의 생명을 공히 위협하는 현재의 세계관을 철저히 이해하고 그것을 전복하는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그는 정세랑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의 동물 이용 및 섭취를 ‘회고’하는 이야기를 직조하는데, 이야기 속 킬의 손녀는 ‘과거’(=현재)의 사람들이 동물을 먹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Marti Kheel, “From Heroic to Holistic Ethics,” *Ecofeminism*, ed. Greta Gaard,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3, pp. 261-262.

것을 보여 주기도” 한다는 점이다. 일레로 전치형·홍성욱은, 일본 인공지능학회가 미래에 인공지능이 일상에서 활용되는 장면을 상상한 그림을 학술지 표지로 선택했을 때, 이 그림이 집을 청소하는 안드로이드 로봇을 젊은 여성으로 묘사했다는 사실을 소개한다. 이는 가사노동을 여성의 일로 상정하는 현대 사회의 고정관념이 미래상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⁶⁾ 이처럼 미래에 대한 상상력 역시 인종, 계급, 젠더 등을 둘러싼 현재의 교차적 권력관계와 담론 생산자의 이념 및 세계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죽음 없는 육식의 탄생”과 ‘고기’의 본질적 의미가 변화하는 미래상을 그리는 소설들이 현재—그리고 미래—의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정세라의 「7교시」와 마찬가지로 배양육을 소재로 한 심너울의 「한 터럭만이라도」(『나는 절대 저렇게 추하게 늙지 말아야지』, 아작, 2020)는 주목에 값한다. 소설은 배양육 개발사 그린플레이버의 직원 형준이 인간의 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줄 아는,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회색앵무 티렉스의 세포를 이용해 배양육을 개발하고자 티렉스의 반려인인 화자를 찾아오면서 시작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중첩돼 있다. 기후변화로 “인천 송도가 잠길 뻔하고, 서울에는 1월에도 눈이 내리지 않고, 대구에서 감귤을 기르”는 미래의 한국 사회에서 배양육은 “가축을 도살할 필요가 없으니 더 윤리적이고, 가축이 내뿜는 메테인도 줄어드니 훨씬 환경친화적”인 고기로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다(234-235). 그러나 배양육 기술이 완숙한 뒤에도 여전히 농장에서 기른 ‘자연스러운’ 동물의 고기를 선호하는 이들은 남아 있다. 소설은 “‘자연스러운’ 고기는 21세기 초의 유기농 채소처럼 프리미엄을 받고 팔렸다”고 서술하는데(237), 이는 배양육이 상용화된 미래에는 ‘천

56) 전치형·홍성욱, 『미래는 오지 않는다』, 문학과지성사, 2019, 8, 10, 193, 236-238쪽.

연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재력이 있는지 여부로 그린 스푼(green spoon)과 그래스 스푼(grass spoon)이 나뉠 수 있다는 상상력을 보여 준 『수퍼텅』(공명출판사, 2022)의 설정과도 유사하다. 이처럼 ‘자연적인 것=좋은 것’이고 ‘비자연적인 것=나쁜 것’이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자연에 대한 오래된 관념이 미래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리라는 예측은 곧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자연’ 관념의 절대성을 파괴하지 않으면 동물 이용 및 섭취는 지속되리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린플레이버의 라이벌 기업인 네오미트는 “세포 제공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인육을 배양해 판매하기 시작했다(238). 비인간 동물에게서는 세포 추출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간에게서 채취한 세포를 배양한 인육이야말로 “그 어떤 동물도 사람도 희생하지 않”는 가장 “인간적”(238)이고 “윤리적인 고기”(233)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설 초반부에 화자가 인간 배양육으로 만든 고기를 “사람 고기”라 칭하자 자신은 “인간 유래 배양육 제품이라고 부르는 편을 선호”한다는 형준의 말이 암시하듯(223), 인간 배양육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어떠한 윤리적 부담을 부과하는 대상으로 여겨진다. ‘인간은 먹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감각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배양육 기업은 “사람 고기” 대신 “인간 유래 배양육 제품”이라는 완곡어법을 사용해 부재지시대상화의 효과를 노리고 윤리적 부담을 우회하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인구의 절반에게만 효과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네오미트와 경쟁하던 그린플레이버는 인간 배양육보다도 “더 윤리적인 고기”, 즉 “인간이 아니면서, 동시에 스스로 세포를 제공할 것을 선택한 자의 고기”를 얻고 싶어했고, 티렉스가 이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형준이 화자를 찾아왔던 것이다(241).

형준은 화자에게 티렉스의 세포를 채취하는 대가로 막대한 금액을 제시하고, 처음에는 형준의 제안을 거절했던 화자 역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화자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를 당할 뻔한 티렉스를 자신이 ‘구원’했으며, 그를 보살피고 그와 함께 사는 과정에서 자신이 많은 것들을 ‘희생’했음을 떠올린다. 결국 화자는 “내가 스스로 한 희생에서 보상을 바라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245), 형준과 함께 티렉스를 설득하기 시작한다. 형준은 “모두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티렉스에게 최대한 고통 없이 세포를 채취하고 충분한 보상을 할 것을 약속한다(249).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하고 싶지도 않고 더 많은 돈을 원하지도 않는 티렉스가 형준의 제안에 뜻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자, 화자는 티렉스에게 “친구”(251)로서 부탁한다고 말하지만 티렉스는 역시 제안을 거절한다. 설득의 과정이 지지부진하자 형준은 화자와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데, 화자가 생각을 정리한 후 돌아왔을 때 티렉스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한참을 찾아다닌 끝에 형준의 도움으로 화자는 티렉스와 재회한다. 이때 티렉스는 화자가 단순히 티렉스의 세포를 팔려고 해서 화난 것이 아니라, 화자의 행동이 자신을 “강압”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260-261). 또한 형준이 자기 대신 화자를 먼저 찾아온 것 역시 사람들이 자신을 “애완동물”로 화자를 “주인”으로 여기기 때문이며, 화자 역시 말로는 “반려”와 “동등”을 운운하지만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그대로 수락한 채 “나를 그냥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있는 동물처럼 대했”기 때문에 분노했다고 설명한다(263). 이에 화자는 자신이 겉으로는 “친구”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소유물”로 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형준을 쫓아내자고 말하지만, 티렉스는 자신과 오랫동안 관계 맺어 온 화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폭소와 빈정거리는 웃음이 결합된” 소리를 내면서 계약서를 살펴본 뒤 자신의 발톱 때를 제공하기로 동의한다(265).

「한 터럭만이라도」에서 주목할 것은 결국 자신의 세포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티렉스의 선택 자체가 아니라, 그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

에서 불평등한 인간-동물 관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화자 역시 티렉스의 말에 수긍하면서 티렉스에게 세포를 제공하지 말자고 말하는 장면이다. 처음에는 티렉스의 세포를 제공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화자는 “친구”이자 “반려”로서 티렉스와 맺었던 관계들을 다시 떠올리며 마음을 돌린다. 그저 공통처럼 거대한 몸집을 가진 회색앵무 중 한 명에 불과했던 존재에게 티렉스라는 이름을 붙여 주고, “나보다 오래 살 수도 있는, 나의 모든 것을 함께하고 기억할 반려동물”과의 공생에 따른 책임감을 느끼며(227),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체리 먹는 것을 좋아하는 그의 취향을 알고, 그가 주는 즐거움을 통해 자신을 “휘어잡던 우울증에서 꽤 헤어”(245)날 수 있었던 티렉스와의 상호돌봄 관계는 화자에게 ‘동물은 먹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상식의 상식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는 입구를 제공한다. 이처럼 소설의 배경을 이루는 ‘자연스러운’ 고기에 대한 잔존하는 선호와 인간 배양육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을 통해, 나아가 화자와 티렉스의 관계처럼 인간과 동물이 맺고 있는 소중한 (significant) 관계에 대한 주목을 통해, 「한 터럭만이라도」는 생물학적으로 모두 피식자에 해당하는 인간과 동물의 섭식가능성에 대한 윤리적 물음을 던진다. 나아가 이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곧 ‘선(善)’으로 치환해 이해하는 낯은 세계관을 비판적으로 문제화하고, 미래의 인간-동물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동료성—소설의 표현을 따르자면 “동지감”(229)—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성찰을 불러일으킨다.

앞서 「7교시」가 배양육 기술을 통해 인간-동물 관계 자체를 종결시킴으로써 동물 착취가 사라진 미래를 상상했다면, 「한 터럭만이라도」는 기술 발전에 따른 문제의 해소를 넘어 현재의 인간-동물 관계가 배양육 기술이 도입된 미래까지 연장될 때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물음들을 훨씬 복합적으로 사유한다. 그렇다면 과연 배양육 기술은 육식 관습의 기저에 놓인 인간과 동물 사이의 권력관계에 대한 채식주의/비거니즘의

질문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혹은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도 있다. 배양육 기술이 상용화된 사회는 채식주의자/비건이 환영하는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많은 논자들은 배양육 기술이 살점을 음식으로 여기는 관념이나 잘못된 인간/동물 이분법과 위계질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그러나 현실에 엄존하는 비인간 동물의 고통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배양육 기술의 약속은 이러한 사항들을 부차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⁵⁷⁾ 이 지점에서 비거니즘은 상식의 상식을 거부하는 식습관이면서 동시에 식습관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예바 하이파 지로의 관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로는 배양육 같은 과학기술 혁신이 동물을 향한 폭력을 경감시킬 수는 있어도 초국가적 음식 시스템에서 기인하는 식량 불평등을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배양육 기술은 제품 생산 과정과 결부된 자본주의적 욕망과 그 폐해를 은폐하는 또 다른 부재지시대상화로 귀결될 수 있음을 비판한다.⁵⁸⁾ 이는 비거니즘이 채식주의로의 전환과 더불어 수많은 비/인간 동물의 고통 위에 지어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결연한 반대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비거니즘은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를 추동하는 힘이 될 수 있을까? 인간-동물 관계의 철저한 단절을 상정하는 폐지주의(abolitionism)나 멸종주의(extinctionism) 따위와는 거리가 먼,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로 구성된 연결의 공동체가 미래에도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미래를 기술과 시장에 일임하지 않고, 우리의 세계관과 음식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대안적 실천으로는 무엇이 있을까?⁵⁹⁾ 대부분의 인간이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대안은 다름 아닌 채식이다. 채식은 단순히 고기를 끊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코로나19와 같은 인수

57) Josh Milburn, "Chewing Over In Vitro Meat," *Res Publica*, Vol. 22, 2016.

58) 예바 하이파 지로, 장한라 역, 『비거니즘』, 호밀밭, 2022, 111, 121쪽.

59) 벤저민 A. 위개프트, 방진이 역, 『고기에 대한 명상』, 돌베개, 2022, 385쪽.

공통감염병에 의해 전면화되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나쁜’ 관계를 청산하는 출발점이며, 규범에 저항하는 퀴어 에로스를 해방하고 신체의 감각과 욕망을 재배치함으로써 세계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법을 ‘다시’ 배우는(un/learning) 일이다. 동물산업복합체⁶⁰⁾에 의해 장애화되고 죽음을 맞는 비/인간 신체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실천이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기후위기에 맞서 미래를 보존하는 정치적 행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시현의 「어스」가 우리에게 말해 주듯 “미래에 대해 말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이 전부 기회의 순간이기도”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일이다(85). 인간/동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는 한국 소설들과 함께, 미래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5. 나오며

이 글은 인문사회과학의 동물적 전회(animal turn)와 지금-여기의 행성적 재난 상황이라는 맥락을 모두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현재 비인간 동물을 마주하는 가장 일상적인 방식으로서 육식 관습⁶¹⁾을 문제 삼지 않고서는 인간-동물 관계의 근본적 변혁이 불가능한바, 한국 소설에 나타난 채식의 상상력을 갱신하고, 이를 토대로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더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했다. 결론을 대신하는 이 장에서는 비거니즘을 중심 소재로 다루는 두 권의 청소년소설을 간략히 살펴본다. 기후위기란 “과거 및 현재 세대가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자원을 남용하고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한 결과로 미래세대의 권리가 박탈당한 사태”⁶²⁾이며, 이러한 기후위기에 맞서 그레타 툰베리를

60) Barbara Noske, *Humans and Other Animals*, London: Pluto Press, 1989.

61) 피터 싱어, 김성한 역, 『동물 해방』, 연암서가, 2012, 280쪽.

62) 조효제, 『탄소 사회의 종말』, 21세기북스, 2020, 184쪽.

비롯한 청소년 기후정의 활동가들은 지구의 미래를 바꾸는 행렬의 가장 선두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청소년소설은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인간의 상식의 상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온 잘못된 인간-동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을까?

강이라의 『비건소녀 진초록』(앤드, 2025)은 아토피로 고기와 유제품을 먹지 못하는 언니 아름 때문에 “비자발적 비건”(88)으로 살아온 고등학교 1학년 초록의 이야기를 그린다. 소설은 무엇을 먹을 것인지는 자기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초록의 이야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초록과 같은 인문학 독서 동아리 구성원이자 챗터 말미마다 삽입돼 있는 웹소설 「비건 기미나인 송시내」의 작가이기도 한 리진이라는 인물을 공들여 묘사한다. 리진은 입학 이후 매일 점심시간마다 급식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다. 그의 피켓에는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실천함으로써 세계를 변화시키자는 국제 캠페인인 ‘고기 없는 월요일(Meat Free Monday)’이라든가, 햄버거 패티 재료인 소고기를 공급하는 축산농장의 확대가 열대림을 파괴하고 있다는 ‘햄버거 커넥션’을 알리는 내용들이 적혀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진은 선배 윤수로 부터 “피켓에는 맛이 없어. 설득에도 요령이 있어야 돼”라는 조언을 듣는다(71). 이에 리진은 초록의 어머니에게 배운 레시피대로 마라두부버거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눠 준다. 이처럼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채식의 ‘감각’을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후 채식 급식 확대를 공약으로 출마한 전교 부회장 선거 연설에서 학생들에게 비건 쿠키를 나눠 주는 행동으로도 이어진다. 즉 초록이 “비자발적 비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학생들 역시 그저 사회문화적 관습/관성대로 비자발적 잡식인으로 살고 있을 수 있다면, 리진은 이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음을 제시하려 했던 것이다.

이처럼 강이라의 소설은 정보 결핍형 모델(information deficit model)

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상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잘못된 태도를 가지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이들의 행동과 태도가 자동적으로 바뀌리라 전제하는 소통 모델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리베카 헨틀리는 인간은 이성적인 동시에 감정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는 소통 모델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감정에 주목하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⁶³⁾ 김지현의 『브로콜리를 좋아해?』(사계절출판사, 2024)는 짝사랑이라는 소재를 통해 등장인물에 이입하는 서사적 공감(storied empathy)을 독자에게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비인간 동물의 삶에 주의를 기울이고 현재의 인간-동물 관계를 둘러싼 관습을 문제 삼으면서 채식주의/비거니즘 실천으로 나아가는 인물의 이야기를 그린다.⁶⁴⁾

소설은 획일적인 규범과 정답만을 따르는 고등학교 생활에 익숙했던 유진의 삶의 태도가 변화해 가는 과정을 충실히 따라간다. 유진의 변화가 시작된 것은, 자신의 집에 자주 찾아오는 길고양이와 친근하게 지내면서 고기를 못 먹는 알레르기가 생겼다며 급식을 먹지 않고 매일 채식 도시락을 싸다니는 회원을 짝사랑하게 되면서부터다. 유진은 회원이 늘 혼자 도시락을 먹는 이유를 알게 된 뒤, 동물을 사랑하는 친구 수현과 함께 소와 돼지가 들어간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육식을 줄여 나간다. “채식, 비거니즘, 제로 웨이스트”의 환경적 중요성은 익히 알았지만, 그런 건 “나와는 다른,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실천력이 강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65-66)이라고 생각했던 유진이 자신이 좋아하는 누군가를 외롭게 두고 싶지 않다는 ‘사소한’ 이유로 삶의 방식을 전환해 나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유진에게 “교실 가장자리로 조금

63) 리베카 헨틀리, 이민희 역, 『기후변화, 이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양철북, 2022, 27-29쪽.

64) 로리 그루언, 송심별 역, 『엷힌 공감』, 프레스타!, 2026, 24, 90, 130쪽.

벗어나 버린 느낌”(77), 즉 정동적 이방인이 된 느낌을 안겨 준다. 그때부터 유진은 지금까지 자신이 당연하게 여겨 왔던 것들, 이를테면 미디어를 점령한 육식 콘텐츠나 길거리의 수많은 육식당들, 그리고 “몸보신엔 역시 고기”라는 익숙한 세계관을 ‘낯설게’ 감각하게 된다. “어떤 생명은 먹기 위해 태어나고, 또 다른 생명은 먹히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사는 이 세계를 낯설게 보게 된 것이다(80-81).

김지현의 소설은 이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이 곧 인간과 동물 사이의 연결을 전인하고 그 연결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존의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으로부터 차차 벗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물론 한두 사람의 세계관이 변화한다고 해서 수천 혹은 수만 년 동안 이어진 인간-동물의 억압적 관계 자체에 균열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비거니즘은 구조적 문제에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개인화된 윤리로 일관한다는 익숙한 비판에도 경청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지현의 소설은 유진과 영양 교사의 대화를 통해, 음식을 둘러싼 기존의 관념과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애쓰는 청소년들이 더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런 “청소년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는 어른들이 많아”질수록 미래의 세계는 느리지만 분명히 바뀌어 나가리라는 믿음을 보여 준다(169). 한 명의 비건이 아직 비건이 아닌 이를 ‘낯선’ 세계관으로 기꺼이 초대하고 환대하는 것, 그러한 연결이 또 다른 연결을 낳으며 기쁨의 공동체를 증식해 나가는 것, 그리하여 더 정의로운 인간-동물 관계를 위해 상식의 상식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⁶⁵⁾ 이것이야말로 채식주의/비거니즘이 사위어 가고 있는 미래의 간절한 부름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자세일 것이다.

65) 비건교사나는냥, 『학교에 비거니즘을』, 휴머니스트, 2024, 93-104쪽.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강이라, 『비건소녀 진초록』, 앤드, 2025.
- 김기창,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 민음사, 2021.
- 김나래, 『육식주의자들』, 감자와토마토, 2021.
- 김은, 「오늘의 기원」, 구병모 외, 『무민은 채식주의자』, 걷는사람, 2018.
- 김이태, 「식성」, 『궤도를 이탈한 별』, 민음사, 1997.
- 김지현, 『브로콜리를 좋아해?』, 사계절출판사, 2024.
- 듀나, 『브로콜리 평원의 혈투』, 자음과모음, 2011.
- 마이페이머릿아이러니, 『수퍼텅』, 공명출판사, 2022.
- 배수아, 『당나귀들』, 이룸, 2005.
- 서이제, 「두개골의 안과 밖」, 『자음과모음』 49호, 2021.6.
- 송경아, 「위태로운 식탁」, 『문학동네』 28권 4호, 2021.12.
- 심너울, 「한 터럭만이라도」, 『나는 절대 저렇게 추하게 늙지 말아야지』, 아작, 2020.
- 안성호, 「육식」, 『실천문학』 75호, 2004.8.
- 예주, 『후구의 초상』, 플레어드, 2021.
- 오수연, 『부엌』, 이룸, 2001.
- 이동원, 「채식주의자」, 『조선문단』 4호, 1925.1.
- 이상옥, 「어느 시인의 죽음」, 『기린의 심장』, 교유서가, 2021.
- 이안리, 「플렉시테리언」 『동아일보』, 2022.01.03.
- 이제하, 『초식』, 문학동네, 1997.
- 임선우, 「환하고 아름다운」, 『악스트』 39호, 2021.11.
- 임솔아, 「광반사 재채기 증후군」, 『릿터』 17호, 2019.4.
- 정세랑, 『목소리를 드릴게요』, 아작, 2020.
- 조세희, 「강을 못 지킨 나」, 『시간여행』, 문학과지성사, 1983.

- 조시현, 「어스」, 『AnA』 1호, 2021.3.
조예은, 「고기와 석류」, 『릿터』 31호, 2021.8.
조진주, 「더 나은 것」, 『릿터』 17호, 2019.
천정완, 「육식주의자」, 『창작과비평』 41권 2호, 2013.7.
한강, 『채식주의자』, 창비, 2007.

2. 단행본

- 강지희, 『파토스의 그림자』, 문학동네, 2022.
김정희원, 『공정 이후의 세계』, 창비, 2022.
김현, 『김현문학전집』 2권, 문학과지성사, 1991.
비건교사나는냥, 『학교에 비거니즘을』, 휴머니스트, 2024.
전치형·홍성욱, 『미래는 오지 않는다』, 문학과지성사, 2019.
정지우,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한겨레출판, 2020.
조효제, 『탄소 사회의 종말』, 21세기북스, 2020.
그레타 가드, 김현미 외 역, 『비판적 에코페미니즘』, 창비, 2024.
로리 그루언, 송섬별 역, 『엷힌 공감』, 프레스탁!, 2026.
롭 닉슨, 김홍욱 역, 『느린 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 에코리브르, 2020.
롭 윌러스, 구정은·이지선 역,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 너머북스, 2020.
리베카 헌틀리, 이민희 역, 『기후변화, 이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양철북, 2022.
마리아 미즈, 최재인 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2014.
미란다 프리커, 유기훈·정선도 역, 『인식적 부정의』, 오월의봄, 2025.
발 플럼우드, 김지은 역, 『악어의 눈』, yeondoo, 2023.
벤저민 A. 위개프트, 방진이 역, 『고기에 대한 명상』, 돌베개, 2022.
사라 아메드, 성정혜·이경란 역, 『행복의 약속』, 후마니타스, 2021.
수나우라 테일러, 이마즈 유리·장한길 역, 『짐을 끄는 짐승들』, 오월의

봄, 2020.

안드레아스 말름, 우석영·장석준 역,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마농지, 2021.

에바 하이파 지로, 장한라 역, 『비거니즘』, 호밀밭, 2022.

오드리 로드, 주혜선·박미선 역, 『시스터 아웃사이더』, 후마니타스, 2018.

체이스 퍼디, 윤동준 역, 『죽음 없는 육식의 탄생』, 김영사, 2021.

캐럴 J. 애덤스, 김현지 역, 『인간도 짐승도 아닌』, 현실문화, 2022.

_____, 류현 역, 『육식의 성정치』, 이매진, 2018.

캐럴 J. 애덤스·로리 그루언 편, 김보경·백종륜 역, 『에코페미니즘』, 에디투스, 2024.

피터 싱어, 김성한 역, 『동물 해방』, 연암서가, 2012.

한나 아렌트, 김선옥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2006.

Crary, Alice, *Inside Eth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Noske, Barbara, *Humans and Other Animals*, London: Pluto Press, 1989.

Sedgwick, Eve K., *Epistemology of the Closet*,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3. 논문

김선영,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가르멘 보우요사의 『사라지는 게 더 나아』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변신 서사로서의 ‘식물-되기」,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2권 3호,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21, 79-100쪽.

김재경, 「소설에 나타난 음식과 권력의 문화기호학」, 『여성문학연구』 2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251-281쪽.

백종륜, 「데리다의 채식주의 비판과 에코페미니즘의 맥락적 채식주의 윤리」, 『비평과 이론』 29권 2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24, 53-85쪽.

- _____, 「채식의 정동 정치」, 『문화연구』 8권 1호, 한국문화연구학회, 2020, 101-126쪽.
- 송다금, 「한국 서사 장르의 동물 담론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이아름, 「내재성의 철학과 문학의 생성적 힘」, 『인문과학』 101집,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6, 243-280쪽.
- 이호규, 「집단적 광기에 녹아내린 반향」, 『우리어문연구』 17집, 우리어문학회, 2001, 209-228쪽.
- 조윤정, 「무명작가의 복원과 문인교사의 글쓰기」, 『한국현대문학연구』 48집, 한국현대문학회, 2016, 231-264쪽.
- 진선영, 「인류세, 기후소설과 유스토피아」, 『문학과환경』 21권 2호, 문학과환경학회, 2022, 195-221쪽.
- 황지선, 「인간으로 동물 되기」, 『인문과학연구』 54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5, 1-35쪽.
- Alvaro, Carlo, “Ethical Veganism, Virtue, and Greatness of the Soul,” *Journal of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Ethics*, Vol. 30, No. 6, 2017, pp. 765-781.
- Clark, Michael J., “Sex, Earth & Death in Gay Theology,” *UnderCurrents*, Vol. 6, 1994, pp. 34-39.
- Diamond, Cora, “Eating Meat and Eating People,” *Philosophy*, Vol. 53, No. 206, 1978, pp. 465-479.
- Gaard, Greta, “Toward a Queer Ecofeminism,” *Hypatia*, Vol. 12, No. 1, 1997, pp. 114-137.
- Kheel, Marti, “From Heroic to Holistic Ethics,” *Ecofeminism*, ed. Greta Gaard,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3.
- Lee, Myungho, “An Eco-Ethical Project of “Becoming” a Plant,” 『비평과이론』 25권 2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20, 103-123쪽.

- Milburn, Josh, "Chewing Over In Vitro Meat," *Res Publica*, Vol. 22, 2016, pp. 249-265.
- Muñoz-González, Esther, "The Anthropocene, Cli-Fi and Food," *Atlantis*, Vol. 43, No. 1, 2021, pp. 39-54.
- Park, Soo Jin, "Posthuman Metamorphosis in Han Kang's *The Vegetarian*," 『비교한국학』 27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9, 119-148쪽.
- Plumwood, Val, "Nature in the Active Voice," *Australian Humanities Review*, No. 46, 2009, <https://australianhumanitiesreview.org/2009/05/01/nature-in-the-active-voice/>
- Proctor, Robert N., "Agnotology," *Agnotology*, eds. Robert N. Proctor and Londa Schiebing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8.
- Stephens, Beth, and Annie Sprinkle, "The EcoSex Manifesto 2.0," *CSPA Quarterly*, No. 17, 2017, pp. 7-11.
- Twine, Richard, "Vegan Killjoys at the Table," *Societies*, No. 4, 2014, pp. 623-639.

4. 신문 · 잡지 기사

- 김기진, 「일월창작계총평」, 『개벽』 56호, 1925.2.
- 백종륜, 「비건은 인간중심주의와 종차별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OFF Magazine』, 2021,
<https://off-magazine.net/TEXT/2021-jongryun.html>
- 장운철, 「구약성경의 다니엘이 채식주의자라고?」, 『교회와 신앙』, 2022.12.26.,
<https://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40>

<Abstract>

Questioning the Common Sense of Edibility:
A Study of Korean Vegetarian Fiction

Baek, Jong-Ryun^{*}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Korean fiction that questions the common sense of edibility by distancing itself from the dominant cultural logic that legitimizes the use and consumption of animals. Specifically, it examines how such fiction seeks to reconfigure society's common sense regarding which beings are deemed acceptable to kill and consume through sustained reflection on ethical relations between human and nonhuman animals. To this end, it analyzes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animals become absent referents in meat consumption, as well as the representational conventions that reduce vegetarianism and veganism to an unnatural form of asceticism. As an alternative, it discusses the redirection of desire and the proliferation of connections through queer eros. The article also examines fiction that employs the motif of cannibalism to position humans not as predators but as prey. Furthermore, it considers fiction that, by attending to the forms of relations between human and animal lives and to the personhood and/or personality of nonhuman animals, advances the idea that animals, as fellow creatures, are no more objects for consumption than humans are. Moreover, at a time when cultured meat is expected to enable meat consumption without entailing the death of animals, the article argues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at the imaginative capacity to transform the very worldview shaping future human-animal relations is more important than gambling everything on technological progress. Lastly, it examines young adult fiction centered on vegetarianism, argues for the need to develop vegan communication strategies, and considers literature's capacity to foster storied empathy and communities of connection. Examining how Korean literature has grappled with the complex ethical and political questions surrounding the consumption of animals, this article seeks to contribute to richer discourses on vegetarianism and veganism as practices of resistance to the global capitalist system that drives the lives of us all, human and nonhuman alike, toward catastrophe.

Key Words: Vegetarianism, Veganism, Animal, Human-animal
Relationship, Queer Eros, Cannibalism, Cultured Meat,
Climate Crisis, Cli-fi, Absent Referent

■ 논문접수 : 2026년 07월 26일
■ 심사완료 : 2026년 08월 10일
■ 게재확정 : 2026년 08월 10일